

예수 그리스도로 부요한 삶

요한계시록 3:14-22

【인도자를 위한 예화】

많은 사람이 즐겨 부르는 찬양에 관한 일화입니다. 찬양을 만든 이는 가난한 동네에서 고생스러운 일상을 보낼 때, 문득 하나님 은혜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불리던 다른 찬송들과 곡조의 형태가 달랐고, 또한 악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교회 문화와 맞지 않아 널리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 곡은 잊혀 갔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이 곡의 악보를 발견해 부르기 시작하면서 방송에도 나오고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찬양을 들으며 위로를 얻고 신앙의 도전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곡을 만든 이는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자신이 작곡한 곡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들은 그는 정신을 차렸고, 하나님께 돌아와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기에 작은 문제나 상처에도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시기에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나누어 보세요.

【본문 읽기】 요한계시록 3:14-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 마지막 편지의 수신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편지는 다가오는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의 교회에 심판자이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지 보여 줍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관한 몇 가지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요한 당시 실제 존재했던 일곱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해석, 역사적으로 존재한 교회인 동시에 교회사에서 존재할 교회들의 유형이라는 해석입니다. 또한 종말의 때에 나타날 교회들의 각기 다른 유형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교회의 순서에 의미를 두면서, 교회사에서 볼 수 있는 일곱 시대를 표방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중 마지막 해석은 각 시대의 구분 지점을 역지로 해석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킨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견해에는 해석적 의의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주님의 재림과 종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무관심과 뜻뜻미지근한 신앙은 말세에 주님이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과 역설을 이루며 잘 연결됩니다. 본문 속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며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영적으로 도전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나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셨나요?(15-16절)

주님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특징은 칭찬이 없다는 점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육지와 바다로 가는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무역과 금융업이 발달했고, 현지에서 생산되는 양털의 질이 좋았기에 라오디게아 주민의 상당수가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정도로 삶의 환경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부요하다고 착각하는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또한 세속적인 문화와 심지어 이단의 공격에도 안일하게 대처하며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소극적인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무엇보다

다 그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반복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15-16절). 라오디게아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는 온천으로 유명했고, 동쪽에 있는 골로새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차가운 물로 유명했습니다. 이 두 물이 라오디게아에서 만나면서 미지근한 물이 된 것입니다. 이는 온천수인 뜨거운 물이나 치유하는 차가운 물처럼 사람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함에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은 채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경제적 부유함에 빠져 신앙의 선명함을 잃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행위와 신앙 상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I

나의 신앙 온도는 몇 도쯤일지 생각해 보고,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미지근한 신앙은 세상이 주는 영화와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동시에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기적인 신앙 형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복음을 믿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무사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깨닫거나 누리지 못합니다. 둘째, 언젠든 자신에게 하나님의 때가 온다고 오해합니다. 셋째,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망각한 채 사탄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모릅니다. 넷째, 삶의 경건함이 무너져도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는 교리의 한 부분만을 붙잡고 그것에 소망을 둡니다. 복음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지만,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방종하며 자유방임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십자가에 옛 자아를 못 박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았기에 이제는 하나님 영광의 도구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합니다. 희미해지고 차갑게 식은 신앙 온도를 높이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음으로 몸으로 애써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II

문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20절)

주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주님과 더불어 먹을 것입니다.

20절은 간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구원의 초청이나 약속처럼 인용되지만, 본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문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시며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19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들의 영적 비천함을 알지 못했고, 스스로 나아가야 할 의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불의하고 안일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한번 더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 문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20절에서 더불어 먹는다는 말은 죄인이 회개할 때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천국을 상기시킵니다. 천국은 회개하지 않은 의인이 아닌, 회개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과 더불어 하늘 잔치를 여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영광으로 그 잔치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II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자세는 무엇일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돌이킬 힘이 없었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책망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책망받아도 마땅할 만큼 주님께 불순종했고 또 신앙적으로도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본심은 책망함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어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에 마음을 여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것은 경건한 생활이나 사명에 책임을 다함으로써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려는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에 반응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크신 사랑을 삶에서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 주님이 나를 초대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크든 작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하는 것입니다.